**At Kearney (2007.12.24)**

이제, 두번쨰,  AT커니 입니다.

AT커니는 아시다 싶이, 종경이 형이 다니고 있는 bain과 같은 건물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. 여기도, 서울역에 시청역으로 가서 9번 출구로 나가서 좀 걸으면 됩니다. 때은 토요일 11시였습니다. 우선 그날 면접은 총 3번의 몇접관과 1:1 면접으로 일루어 졌습니다. 따라서 꽤나 시간이 걸렸으며, 저도 11시 면접 이었지만 약 50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 갔습니다. 기다리는 곳은 대기실이 었습니다. CS와는 다르게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. 서울대 경영대03 , 경제학과 04 한명, 연세대 경영대 남자 1명, 여자 1명 이었습니다.

서울대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, 우리 학교도 관심 있나고 물으면서, 동아리도 물어 보고 그랬습니다. 설대경영03여자 가 자기도 동아리 SMIC 한다면서, KFAC와 비슷한 걸 한다고 그러면서, 나중에 자기 동아리 세션 같은 것에 왔으면 좋겠다고, 회장 번호를 알려 주더 군요. 그래서 승민에게 전달.;;

그렇게 면접 시작,

아 참고로, 선발까지의 면접은 1차, 2차 로서 1차는 3명과 1:1 이고,  2차는 주제에 대해서 PT하는 것이었습니다. 총 지원자수는 130명 이었으며, 1차 면접은 10명이 보았고, 2차 PT는 4명 정도 할꺼라고, 하였으며, 결과적으로, 2명을 뽑는 다고 하였습니다.ㅠ; 처음엔 무슨 1달 쓰는데 이렇게 복잡하나 했습니다. 사실 이것은 1달짜리 인턴 이었는데, 마지막 면접관이 말하길, 1달 써보고, 바로 채용 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. 바로 여기서... 헉!!!

아 그리고, 다른데 쓴데 없나고 하닌까? CS봤다니까. 설대 경영이가 나도 봤다고 하면서, 나는 리만 파이널 갔다고 그러더군요. 그런니까 갑자기, 설대 경제녀가 아는 선배가 CS 갔다고 그러더군요. 그래서 경영녀와 저는 썩소를 지었습니다.^^

이번 인턴은 AT커니에서 신설된, 사모펀드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는 부서였으며, 이번의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, 하나로텔레콤과 SK의 M&A관련된 업무? 아님, SKC의 기업분할? 아마 둘다였고, 동시에 진행 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. (아 기억이 잘;;확실한것은 M&A)라고 했던것 같기고 하고,,,

그러면서, 그냥 인턴이 하고 마는 게 아니라, 채용 관련도가 높아서 전문 지식 물어 본다고 했습니다.

역시나 저는 관광했습니다..;;;

**첫번째, 면접 (20분)**

* 우선 간단히 resumre checking 하고, 자기소개, 살면서 크게 꾸지람 받은점,
* why 컨설팅?,
* 너 대전에 살고, 집은 광주인데 합격시 어떻게 할꺼냐?
* 3D 직업이라고 하면서,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?
* 매우 가볍게 잡담 좀하고, 갔습니다.

**두번째,**

여기서는 간단한 회계 지식과 기본 경영지식을 체크 합니다.

어떤 과목 들었는지 체크하고, 회계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.

* 이자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?
* 무상증자와, ????? 의 차이점은???ㅡ.ㅡ 기억이;;
*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의 기록이 잘 맞이 않은데, 왜 그럴까?
*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, 무슨 방법이 있냐?  DCF, multiple 같은 것.
* DCF와 multiple의 장단점은?

대답을 잘 못한 것도 있었고, 그랬는데, 나중에 룸에서 나와서 면접관이랑 말하는데, 지금까지 7명 봤는데,

다들 대답잘 못하는게 비슷비슷하다고, 3번째 분의 면접을 잘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.ㅎㅎ;

**세번째,**

저는 드디어 case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. 하!지!만! 면접관은....;;;

저보고, 니가 제일 어리다고 하면서, 86한명 있었다고,(아마도,,설대 경제학과04?말하는 듯?) 하더군요. 그러면서.....ㅜ.ㅜ; 이번 인턴은 한달써보고 신입 채용하는 거라서, 전문적인 내용 물어 볼꺼라고 하더군요. 저는 직감 했습니다.아~!!ㅠㅠ. 그래도 나름 막 케이스도 보고 준비 했었는데...ㅡ.ㅡ; 암튼 그래서,  긴장하면서...봤는데요.

처음에 질문이 SK와 하나로 텔레콤 물어 보면서, 두개가 M&A하는데, M&A의 처음부터, 마지막까지의 process를 순서대로 말해보고, 어떤식으로 보고서를 제출 할 것인지 말하라고 하였습니다. 저는 뭐라 뭐라고 말했지만, 너무 low level로 말한다고 하면서,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더군요.

그런데 제가 뭐 M&A에 대해서 해봐야 뭘 자세히 알겠습니까?;;;ㅡ.ㅡ;;;그래서,,그사람이

M&A하는데 기업의 가치 평가 방법을 물어 보고, 장단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.

(사실, 두번째 질문 받았을때 잘 몰라서, 3번째 면접 기다리면서, 1번째 면접관을 봐서 그때, 그 사람에게 multiple에 대해서

물어 봐서 대답 할수 있었습니다.;;)

암튼 그랬는데, 면접관이 ! 그럼  multiple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,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사용 해야 하나고 묻더군요.

느낀점은

* 우선 웬만하면 군대 다녀오길..(인턴을 통한 채용 기회를 노릴수 있다.)
* 이번 면접 두개는 영어를 묻지는 않았지만, 속으로 영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여, 영어 말 잘하기.
* 경영 경제의 원론적인 것 뿐만아니라, 실제상황에 대한  case도 많이보고, 평소에 경영학적 생각을 많이 해보기.
* 그리고 면접시에 중요한 점 등등..